

익산시,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전 본격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보고회... 전략 수립·정부 설득논리 마련 시급

익산시가 국립희귀질환센터 지역 유치를 본격화한다. 시는 28일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에는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타당성과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현황을 분석 자료와 중앙부처의 정책자료 제출 및 사전 연구기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용역을 수행하는 한양대 산학협력단 한동운 교수팀은 보고회에서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과 지역공약(한병도 국회의원 공약에 포함)과 연계 하에 익산시 지역 내 설립 타당성 및 방안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할 전략기획 보고서 마련이 시급히 필요

함을 강조했다. 익산지역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제출한데 이어 12월 희귀질환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으며 올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시는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원광대병원과 함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등 풍부한 보건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희귀질환은 세계적인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전 세계 인구의 4%(약 3억 명)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80%는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지역거점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인 국립희귀질환센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국립희귀질환센터 신설의 최적지로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기관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가전청소전문가 과정 군산시, 수강생 모집

가전청소 관련 취·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 교육과정 이 열린다. 군산시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오는 11월 7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3회, 100시간에 걸쳐 군산시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가전청소전문가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에어컨 4종(스탠드 2종 벽걸이, 천장형) 및 세탁기(통돌이)를 대상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원리 및 구조이해(이론) ▲가전제품 분해 및 조립(실습)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시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홈케어 관련 민간자격증 중 가전클리닝마스터 취득 과정이며, 실제 취·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실습위주로 구성됐다. 모집기간은 오는 11월 4일까지이며,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모집인원은 15명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온라인 그랜드 취업박람회

익산시가 맞춤형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 동안 열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취업박람회 홈페이지(issam.coachjob.net)를 구축했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우수 인재 채용을 원하는 익산시와 전지역의 50여개 참여 기업들을 위해 홈페이지 안에 배너형 채용공고 운영한다. 구직자들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참여 구직자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화상 면접, 1:1 온라인 취업클리닉, 280여개 취업교육동영상 제공, 자체면접채용관 등을 개설해 제공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영농 착수

군산시, 대야보덕리 일원 8000㎡ 규모... 임대기간 3년

군산시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본격 영농에 착수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은 시가 지난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제어 추진한 사업으로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형 스마트팜을 임대하여 온실경영과 재배기술, 생산 유통 등 전반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습을 추진했다. 지난 9월 스마트팜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이 입차를 받아 5동의 하우스에서 토마토, 딸기를 정식해 재배하고 있다. 임차인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시설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신축하여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많은 투자비용과 위험이 뒤따랐는데 군산시에서 시설영농을 운영해 볼

수있는 이런 기회를 주어 영농창업에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참단 스마트팜의 기반확충 및 청년농업인의 시설농업에 대한 교육, 실습을 통해 군산의 식량작물 위주 농업에서 고부가가치 시설업에 농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저변 확대를 위해 청년들이 농업경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가 임대한 경영실습 스마트팜은 대야면 보덕리 일원에 총면적 8,000㎡ 규모로 3연동 내재해형하우스 5동으로 조성했으며 복합환경제어시스템(ICT), 튜브레일, 양액시스템, 전기보일러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임대한 경영실습 스마트팜은 대야면 보덕리 일원에 총면적 8,000㎡ 규모로 3연동 내재해형하우스 5동으로 조성했으며 복합환경제어시스템(ICT), 튜브레일, 양액시스템, 전기보일러 등을 갖추고 있다. 경영실습 스마트팜의 임대기간은 3년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되며, 작물 입식 비용 및 영농에 필요한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시설농업을 처음 접하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임대료를 30만원 이내로 책정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시설운영 역할을 키우기 위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전문 이론교육 및 현장

군산시, 수확기 농촌고용인력 중개센터 집중 운영

군산시가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수확기 일손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고용인력 중개센터를 하반기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 구직희망자 사

이에서 인력중개를 하는 역할을 하며, 현수막 및 리플릿 배포 등 홍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구직자와 일손부족농가 모집에 나서고 있다. 모집대상은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와 농촌구직을 희망하는 신청건강

한 지이며, 인력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전액 무료이고, 농가에는 농작업자 교육비(농사초보자 교육비), 구직자에게는 농작업안전보험 가입 및 교통비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신청 및 운영시기는 당해 예산소진시 까지이며, 접수 및 문의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3-454-2889/2836)로 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인구유출 최소화 방안 강구"

익산시가 28만 사수를 위한 고강도 인구정책 추진과 더불어 인구전출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28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주요 기관·단체 방문 및 SNS챌린지 캠페인 추진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익산애 바른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앞장서 준 덕분에 인구감소 폭이 크게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실거주 미전입자를 발굴해 인구전입을 유도하는 것만큼 전출되는 인구를 최소화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악취 등 인구정책에 빠진 이터움을 찾아 빈틈을 메우고 마련된 인구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백제의 '익산시대'가 시작됐다면서 익산백제에 대한 지속적인 역사교육 실시를 추진한다"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지난 주말에 방송된 JTV 특집다큐 '익산은 정말 백제의 수도였을까'를 통해 익산이 백제의 또 하나의 수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단서들이 소개됐다"면서 "앞으로 익산이 백제왕도이자 무왕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익산백제가 초등학교 지역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꼼작마'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합동

익산시는 화물의 대형화와 증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익산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28일 운행제한(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현재 시는 이렇다속반을 편성하여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

으며 지난 28일까지 약 2,500건의 차량계측을 실시하여 3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을 거뒀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통행시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0만대 이상 통행시 도로 파손율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년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주요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 등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벌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 및 통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